10월23일 하와이 무량사에서 '간화선과 대자유 · 행복' 을 주제로 법문한 혜국 스님이 법문 중간에 게송을 읊고 있다.

'나' 라는 그릇 깨고 '참나' 를 보라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 (5·끝)

주제:간화선과 대자유 · 행복

법주: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간화선 수행법이야말로 인류의 등불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주를 내 마음속에 담는 화두 수행을 벗 삼아 내 마음의 고향에서 노니는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월 24일 오전 5시) 하와이 무량사 설법전에서 열린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에서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은 간화선 수행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가꾸어 보자며 법문을 시작했다. 무량사 창건 30주년 ·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며 9월 25일부터 개최해온 간화선 법회를 회향하는 이날 법회에는 1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혜국 스님은 "문화원이 여러 해 동안 애를 썼다가 완공이 된 것은, 평범한 한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하와이에 큰 우물을 하나 파 놓은 것과 같다"며 "이제 이 커다란 연못에 연꽃을 피우고 잉어가 뛰어 놀도록 참선 수행법으로 마음 농사짓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대중들을 향해 물었다.

"오늘 죽는다면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중이 침묵하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 그 시간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 농사를 지었던가? 내가 내 인격과 내 주체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번뇌망상, 감정이

번뇌망상의 노예로 살것인가?

하자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슬플 때는 슬픈 놈 하자는 대로, 번뇌망상이 올 때는 번뇌망상의 노예가 되어서 보낸 세월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욕망이 하자는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것, 그게 가장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희로애락, 탐진치, 시비분별의 크고 작은 파도에 이리 저리 휩쓸리며 살아오지 않은 이가 어디 있을까? 대중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 앞에 갑자기 세워진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내 몸뚱이가 나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 몸뚱이는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프고, 죽지 말라고 해도 죽어버리니 내가 진정 내 몸뚱이의 주인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뚱이로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며 온갖 번뇌와 망상, 슬픔, 원망의 도둑놈에게 내 집을 몽땅 뺏겨 사는 꼴이니 지금이라도 마음 농사를 잘 지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간화선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 스님의 법문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들의 심중을 흔들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손가락을 연비하며 몇 백생을 거듭해도 이 길을 가겠노라 발원한 혜국 스님의 원력을 대하며 간화선 수행의 길에 지레 겁을 먹는다. 이런 대중의 마음을 짐작한 듯 스님 법문은 그 두려움마저 녹여버린다.

"처음 화두 참선을 한다고 척 앉으면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요. 나도 처음 열 세살에 참선하겠다고 절에 왔을 때, 어찌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망상이 일어나는지 무척 고생을 했어요.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손가락까지 태웠는데 하도 공부가 안돼서 가야산 마애불 앞에 가서 부처님을 붙들고 엉엉 울고 내려오는데 성철 스님한테 들켜 불호령을 맞았어요. 공부가 안되고 속이 타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석불까지 찜어지고 가느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바로 화두 참선법은 모든 근심 걱정뿐 아니라 번뇌망상 모든 욕망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공부입니다."

간화선의 수승함을 일깨우는 혜국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자, 대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간화선의 세계에 들어서고 싶은 발심이 꿈틀거린다.

"화두참선법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게 하고 말하게 하는 주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수행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두란 뭡니까? 화두라는 것은 영어 일어 한국어, 인간 축생… 그러한 모든 것이 태어나기 이전 세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 주인을 화두라고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찾아 내 마음을 스승삼고 내 마음을 연인 삼고 내 마음을 벗 삼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화두참선법을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주인을 찾아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 주인이 뭐냐?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혜국 스님은 "지구라는 별에 올 때 목적 없이 온 사람은 없는 만큼 이 몸뚱이를 빌려 쓰는 동안 화두 수행법으로 내가 지구별에 온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열세 살에 출가하여 화두 공부를 이어가는 동안 겪었던 일화 등을 들려주며 지극하고 간절하게 간화선 수행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머리로 따지면 좌선해봐야 헛일

"머리로 따져서는 화두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화두 공부에 들어가려면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전제돼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신(信)이 철저해지고 어째서 '정전백수자' 라 했는가 하는 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저승길 갈 때 화두만이 등불이 되어서 나를 안내해 줄 것이니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대분심이 일어야 합니다. 몇 백 생을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을 연인삼고, 스승삼고 벗 삼아 걸어가는 화두 정진을 하겠다는 마음이 깊어져서 '왜 정전백수자라 했던가? 어째서~ 어째서~' 하는 의심을 깊이 낼 때, 정신 혁명의 길이 비로소 시작 되는 것입니다."

혜국 스님은 "'나' 라는 그릇을 깨버리면 그 그릇 속에 있던 달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은 여전히 밝게 빛을 발하는 이치와 같아서 나라는 좁은 소견을 깨고 내 영혼의 한계마저 훌쩍 뛰어넘어 나의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버리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화두 공부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번뇌와 망상이 보여야 그것을 조복 받을 수 있으며 그릇속의 찌꺼기인 번뇌 망상이 가라앉으면 달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화두수행의 장애인 번뇌와 망상, 졸음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번뇌망상이 쉬었을 때 나타나는 달도 참나는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나라는 그릇을 깨어버리고 전체로 돌아가면 하늘에 있는 달 즉, 전체로서의 부처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부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영혼은 따로 따로 있지만 참나는 하나니 둘이니 하기 이전 자리이며 깨달음이란 영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업식까지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히 짚었다.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대중들은 행복해진다. 그렇게도 바라던 행복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았다.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여기에 행복은 충만해 있었다. 법을 설하는 혜국 스님과 '나' 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까닭이다.

대중들은 원력을 세운다. '나' 라는 그릇을 깨고 울타리를 벗어나리라. 나를 둘러싼 두꺼운 고정관념, 시비분별의 벽을 부수어 그 벽을 넘어 본래 둥실 떠 있던 밝은 달을 대면하리라.

"마음을 다해 화두 참선을 하십시오. 화두란 바로 내 주인이고 화두를 하는 것은 내 주인을 안고 사는 것이고 잠깐 동안 화두 참선하는 것이야 말로 내 주인 마음 고향에서 노니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힘들 때, 고향 생각날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날 때마다 고삐를 다잡아 주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가 우주에 가득 차 결코 남의 밭에 들어가는 일이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선의 세계이며 그 걸림 없는 대수용의 맛을 볼 때 참다운 행복이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 · 사진/하와이=천미희 기자

■ **혜국 스님은** 1961년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참선정진했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했으며 이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간 눕지 않는 장좌불와로 용맹정진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간화선 법회 회향한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미국땅에 한국불교 깊이 뿌리내리겠다 願 세워

"이번 법회는 도량 불사가 마무리된 무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왜 무량사가 지어졌는가? 이 물음을 화두 삼아 이제부터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 남짓 이어진 선원장 초청법회를 회향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불사 회향을 계기로 미국인 현지 포교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미국은 불교를 포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노다지' 입니다. 도량 불사를 마무리했으니 이제부터 미국인의 삶 속에 불교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에 한국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원력하나로 도현 스님의 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이번 간화선 법회로 무량사 불사에 온 정성을 기울여 온 신도들의 내면이 아주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는 도현 스님은 "그러한 신도들의 내면 불사는 미국인 포교의 원동력으로 크게 회향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도들의 수행부터 알뜰하게 챙기면서 미국인 포교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도현 스님의 소신이 묻어난다.

스님은 앞으로 이미 설립 허가를 득한 싯달타대학의 운영을 본격화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을 미국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싯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3년 초 미국 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다.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를 개설하고 미국 현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라는 도현 스님은 "싯달타대학 졸업생을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사로 활용하면 미국인 포교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의 이러한 계획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강사진 확보 등 난제가 뒤따른다. 종단차원의 지원이 아쉽다. 그러나 '어렵지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을 하고 있기에 도현 스님에겐 해야 할 일들만 자꾸 보일 뿐이다.

"선원장 초청 법회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한 스님이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는 형식의 법회를 열어 외국인의 참여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 간화선의 매력은 미국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미희 기자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055)241-0374
휴대폰: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욱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욱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욱氣방 051)865-99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욱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